

# 내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모 선정

# 도민 백신 1차 접종률 70% 넘어

### 전북도, 전주·익산·남원 3개소 선정 국비 47억원 확보... 도내 농산물 경쟁력·농가 소득 향상 기대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공모에 3개소(전주시, 익산시, 남원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47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는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한 시설로, 농산물 집하에서 포장·저장·출하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복합 유통시설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유통 디지털화 및 에너지 절감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시·군·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주원에농협(48억 원), 익산시(30억 원), 남원시(16억 원)에 총 94억 원이 지원된다.



전주원협APC 조감도.

전주원협은 기존 APC의 노후화로 인해 처리물량이 한정적이고 수출이나 인건비를 충족할 수 없었으나,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리물량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현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공간 부족, 처리물량 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영읍 일대에 전처리장, 포장실, 저온물류창고, 안전성분석실 등을 갖춘 푸드플랜 APC를 신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자 수가 127만 명을 넘기며, 전 도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15일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가 127만4,143명으로 도민의 70.6%에 해당하며, 이 중 82만6,477명이 접종을 완료(45.8%)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접종대상 인구(18세 이상 성인)의 83.1%(접종 완료 53.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18~49세 연령층 중 아직까지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분들을 서울로 예약과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예약했다면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잔여 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신청하면 더 빨리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잔여 백신 활용을 2차 접종대상자까지 확대해 보다 신속한

접종 완료 및 백신 폐기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 예약이 가능도록 시스템 변경 조치 예정(9월 3주 중)이며, 잔여 백신(예비명단, SNS)으로 2차 접종 시 1차 접종 후 3, 4주 뒤(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접종 가능하며, 기존 일정은 자동 취소된다.

한편, 도는 최근 도내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오접종 사례로 인해 도민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수 전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접종센터)에 대한 교육과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창환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1차 접종 목표 70%가 달성됐으며, 10월 말까지 2차 접종도 도민 70% 완료를 목표로 백신 도입,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접종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호 기자

##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신지식장학회,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 삼락농정의 대표 실천 기관인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송병철 센터장)'와 출향인 중심으로 구성된 '(사)신지식장학회(조정환 이사장)'는 전북도 농촌 교육 발전을 약속하는 상호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장학금 지급 및 교육사업 추진 등 전북도 농촌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자매결연은 농업과 교육 분야가 전북도 농촌 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사)신지식장학회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20~30여명의 전북 출신 우수 학생을 선발, 장학금(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향인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백승기 (사)신지식장학회 이사는 "출향인이 중심이 되는 장학회가 고향 교육 발전에 보다 넓게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장학금 수여의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갈수록 저출산, 과소화 되고 있는 전북도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항후 지속가능한 자매결연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이달의 으뜸도정상' 시상

### 전북도, 새만금개발과·물환경관리과 등 6개 부서

전북도가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1년 7월과 8월 탁월한 업무성과로 전북도의 위상을 빛낸 6개 부서를 선정하고,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도는 '으뜸도정상' 제도를 2017년부터 5년째 운영하며, 도정의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도록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내부 절차를 거쳐 최우수와 우수 등 6개 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부서에 새만금개발과와 물

환경관리과가, 우수부서에 주력산업과, 농식품산업과, 문화유산과, 특별사업개발과가 선정됐다.

새만금개발과는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출범과 유관기관 협력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새만금산단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또 다른 최우수 부서인 물환경관리과는 만경강 살리기 협약으로 9만톤에 달하는 유류 유출을 막아낸 것은 물론,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여한 바가

크 선정됐다.

주력산업과는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최고등급에 선정돼 국비 250억 원 지원, 디지털산업 육성의 3건 공모 선정에 국비 99억 지원 등 자동차 관련 기업의 집적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산업과는 플라스틱 개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0억 확보, 농식품부 주관 바이오 조성사업으로 2022년부터 3년간 231억 국비를 지원받는 등 전북 경제 성장 촉진 역할이 기대된다.

문화유산과는 지난 2014년부터 고창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추진한 결과, 자연유산 분야 세계 최고 영예 획득으로 유산관광 경제파급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별사업개발과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야간 및 불법영업 합동단속으로 사회 안전화에 꾸준히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이달의 으뜸도정상 선정부서에는 격려금과 최우수 부서와 개인 가점을 성과로 부여하고 있다.

전대식 도 정책기획관은 "매달 선정되는 으뜸도정상은 도정 발전을 위한 기틀로 빛을 발하고 있다"며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도정 성과를 지속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장애인 특성 맞는 맞춤형 주택 개조 지원

### 도내 856가구 추진... 노형수 주택건축과장, 애로사항 청취

전북도가 도내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보금자리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도는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 세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안전 손잡이·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시설 수리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31억 원이 투입돼 도내 856가구의 이

동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150가구에 6억 원의 지원해 현재까지 87가구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재탄생했으며, 겨울철이 시작하는 11월 이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형수 도 주택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 전북도, 마음으로 나누는 추석 명절 군·경 위문

전북도가 지역 향토방위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추석 명절에도 헌신하고 있는 군·경 부대와 119안전센터를 비대면 방식으로 위문 격려했다.

코로나19 대응행으로 인해 전국 확산세가 줄지 않는 가운데, 15일 송하진 도지사가 김전석 제35보병사단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위문했다.

송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대표부대로써 향토방위는 물론, 백신 수송 및 경계·보안 등 감염병 대응 지원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문이 됐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조병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육군 부사관학교, 군산 사정 119안전센터 등 10개 기관의 지휘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윤호 기자

임실군 공고 제2021-1058호

### 임실치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1.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산175-3번지 일원 임실치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안)과 관련하여 「농어촌진흥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2. 관계도서는 임실군 농촌활력과, 관광치즈과, 임실읍사무소, 성수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나 열람 후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내용

- 명칭: 임실치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위치: 임실읍 금성리 산175-3번지 일원
- 규모: 128,296㎡(휴양단지 124,885㎡, 진입도로 3,411㎡)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2021년 10월 중
- 사업시행자: 임실군수
- 사업기간: 2021 ~ 2023년
- 사업비: 97억원 (국비48.5, 군비48.5)
- 사업개요

구분	세부내용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28,296	100.0	
기타 시설	농업전시관 및 학습관 포함	2,019	1.6	
	편의시설	8,843	6.9	
	휴양시설	1,241	1.0	
	레저보유장	10,131	7.9	
	지정환 표 설치	6,878	5.4	
	플레이볼	8,474	6.6	
	놀이시설	5,039	3.9	
	치즈나무 놀이대	2,954	2.3	
	자연체험장1	7,259	5.7	
	자연체험장2	4,852	3.8	
공공시설	조치 및 동물체험장	11,049	8.6	
	주차장	2,878	2.2	
	도로	13,963	10.9	보통로(5,618㎡)
기타 시설	도로	29,028	22.6	
	녹지	14,589	11.4	

나.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21. 9. 16.(목) ~ 9. 30.(목))
- 열람장소: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관광치즈과, 임실읍사무소, 성수면사무소

다. 관계도서: 계획쟁략(열람장소 내 비치)

라. 의견제출 방법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2021년 9월 16일 임 실 군 수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